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중단 시점 놓고 연준내 논쟁 가능성
- WSJ: 11월에 인플레이션 둔화된 품목은 중고차, 항공료, 전기료
- The Economist: 미국의 인플레이션 열기 드디어 꺼질 듯
- Bloomberg 사설: 미국은 숙련된 외국인을 뺏길 여유가 없다

#### [미국 금융]

- WSJ: 팬데믹 용자는 끝나가는데 일부 업체들 못잡고 있어
- Bloomberg: TransUnion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내년에 늘어난다”,

####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통금시간 30%으로 단축” 청사진 마련된다

#### [글로벌 경제]

- NYT: 중국의 코로나는 어떻게 가고 있나...데이터 ‘무용지물’

#### [부동산]

- CNBC: 모기지 수요 약해진다... 금리 인하 탓

#### [오일]

- Bloomberg: IEA 전망, “러시아 수출량 줄면서 오일가격 뛴 수도”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슈퍼마켓들,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 위해 자체 브랜드 제품 제공한다
- WSJ: MS, 실리콘 배터리 신소재 스타트업에 투자
- WSJ: ZARA 매출 증가...경기 침체, 가격 상승에도 견재
- CNN Business: ‘틱톡’ 금지하는 주 늘어...국가 안보 우려 탓

#### [보고서]

- JP모건 보고서들: 사이버: 지정학의 새로운 프론트라인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Slowing Inflation Could Intensify Fed Debate Over When to Stop Raising Rates

####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인상 중단 시점 놓고 연준내 논쟁 가능성

- 연준은 오늘 수요일 금리는 0.5% 인상기로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최근 두달간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이 내년 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연준 관리들의 검토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준은 향후 물가 측정을 더 잘하는 핵심 물가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는데 지난 3개월간 연간 4.3% 속도로 상승해 1년여 기간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어제부터 연준 FOMC가 열려 오늘 수요일 끝나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둘기파는 고물가가 계속 둔화될 것 같고, 경제 활동을 해치는 고금리로 부터 일자리 손실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 반면 연준 매파는 인플레이와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율이 연준의 2% 훨씬 상위에 계속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 WSJ 기사

### WSJ: Prices for Used Cars, Plane Tickets and Electricity Eased in November

#### 11월에 인플레이 둔화된 품목은 중고차, 항공료, 전기료

- 11월에 물론 식품가격과 주택 비용이 여전히 높지만 자동차 가격과 항공료 및 전기료는 둔화됐다.

## WSJ 기사

### The Economist: America's inflation fever may be breaking at last

#### 미국의 인플레이 열기 드디어 꺼질 듯

- 미국의 인플레이 열풍이 꺼질 것이라는 안도감이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S&P 지수는 최근 물가 둔화 보고서 발표에 2% 상승해 지난 10월 중순 이래 꾸준한 랠리를 보이고 있다.
- 또다른 안도감은 연준이 덜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 팬데믹 때 공급망 부족을 겪은 많은 소비재가 이제는 구매 가능한 상황이다. 자동차, 아동 의복, 가전 제품, TV, 장난감 가격이 하락했다. 제품보다 인플레이션 '주범'이었던 서비스도 가격이 둔화되고 있다. 임금도 약하나 마 둔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 이제 우려는 고물가 보다는 저성장. 미국은 내년 첫 상반기에 침체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 The Economist 기사

### Bloomberg 오피니언: The US Can't Afford to Lose Skilled Immigrants

#### 미국은 숙련된 외국인을 뺏길 여유가 없다

- H-1B 비자로 매년 8만5천명이 미국에 온다. 특히 IT 업계는 외국인 기술자에 많이 의존한다.
- 현재 58만명의 H-1B 비자 소지자들에 반정도를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
- 최근 이들에 대한 IT 업계의 해고는 잔인한 상황이다. 미국의 파워는 이런 능력있는 외국인 IT 인재를 흡수해 성장, 기업가 정신, 혁신을 키운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에서 쫓겨나가면서 캐나다와 호주가 외국 인재들이 원하는 거주 국가가 된다.
- 미국 비시민자의 캐나다 이주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128% 늘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은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60일의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보다 숙련된 외국인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도록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WSJ: Pandemic Loans Are Coming Due but Some Businesses Aren't Ready to Repay**

**팬데믹 용자는 끝나가는데 일부 업체들 못갚고 있어**

- 팬데믹 연방 지원금을 받은 많은 소기업체들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타이밍이 아주 나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현재 나쁜 상황에서 되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 SBA는 거의 4백만개의 소기업에게 코비드 지원금으로 3천9백억의 용자를 제공했다. 종업원 임금 부담을 보호해주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한 '탕감되는 용자'와는 다른 용자들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같은 용자 1백20만 코비드 용자건의 경우 첫 상황은 이달이 마감이며, 또다른 일백만건 용자는 내년 1월에 상환해야 한다. 소기업에겐 3.75%의 이자로 30년 기한이 있고, 비영리 단체는 2.75%의 이자율을 상환한다.

WSJ 기사

#### **Bloomberg: US Credit-Card Delinquencies to Rise Next Year, TransUnion Says**

**TransUnion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내년엔 늘어난다”,**

- 내년에 미 신용카드와 개인 용자 연체율이 10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신용 보고 업체인TransUnion는 전망했다.
- 경지 침체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출기관들이 용자를 줄이고 있다.
- 심각한 카드 연체율이 현재 2.1%에서 내년말에 2.6%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 불안한 개인 용자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4.1%에서 4.3%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Bloomberg 기사

### [뉴욕시]

#### **Bloomberg: NYC Wants to Cut Average Commute Times to 30 Minutes as Part of Revival Plan**

#### **“뉴욕시 통근시간 30%으로 단축” 청사진 마련된다**

- 오늘 수요일 공개된 청사진에 따르면 뉴욕시 비즈니스 지역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주거지로, 영구적인 야외식당을 만들고, 대중 교통을 개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골드만삭스와 Banker Richard Ellis 등의 보고서에서 비즈니스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들이 발표된 것이다.
- 뉴요커들이 재택근무하는 데다 세금이 싼 지역으로 가버려 비즈니스 지역이 흔들리면서 뉴욕주지사과 뉴욕시장이 7개월에 전에 마련한 새로운 플랜의 일환이다.
- 여기에는 맨해튼 사무실 공실률을 현재의 22%에서 2025년에 10%로 줄이고, 뉴요커들의 평균 통근 시간을 현재의 41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올해 10월 실업률 5.9%를 2025년 3.7%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 **NYT: How Will China Fare With Covid? ‘Meaningless’ Data Clouds the Picture.**

#### **중국의 코로나는 어떻게 가고 있나...데이터 ‘무용지물’**

-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 규제를 철회함에 따라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중국 정부는 ‘필요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말아라’는 구호를 확산하며 확진 사례를 축소 보고하고, 사망 원인을 기존 만성 질환 탓으로 돌리며 사망자 수를 줄이고 있다.

- 또 중국 사람들은 3년간의 봉쇄로 가계 재정이 고갈되었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이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2주 만에 거의 모든 코로나 제어 시스템이 사라져 버린 것은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학 전문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 달 안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의료 시스템 마비에 의한 지속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코로나 통제 중단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만을 사용하는 데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2, 80세 이상 인구의 40%만이 부스터샷을 접종한 상황으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NYT 기사

### [부동산]

#### **CNBC: Mortgage demand inches higher as interest rates move lower** 모기지 수요 올라간다... 금리 인하 탓

- 모기지 신청수가 지난 한달동안 감소하더니 또다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주택 소유주와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낮은 모기지율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주 모기지 신청 비율은 전주에 비해 3.2% 늘어난 것으로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계절 변동치로 밝혀졌다.
- 30년 고정 계약 이자율은 지난주 6.41%에서 6.42%로 소폭 증가했다.
-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달 이자율은 낮아졌다. 화요일 이자율은 둔화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하락했다.
- 주택 채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 주 전주보다 3% 증가했지만 1년 전 같은 주보다 여전히 85% 낮은 상황이다.

CNBC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 Prices May Rally Next Year as Russian Exports Sink, IEA Says** IEA 전망, “러시아 수출량 줄면서 오일가격 뿔 수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의 오일 생산이 내년 첫분기 말까지 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현재 오일은 지난 3개월간 슬럼프로 런던에서 80달러 거래로 위축됐다.
- IEA는 겨울이 다가 오는데다 내년도 2분기에 석유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오일가격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주요 경제국가들에 조언을 해주고 있는 IEA는 인도의 강한 성장과 중국의 놀랄 만한 회복력 때문에 내년에 전세계 소비는 하루 1백70만배럴씩 증가해 매일 1억160만 배럴로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Supermarkets Offer More Store Brands to Lure Cost-Conscious Shoppers**

**슈퍼마켓들,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 위해 자체 브랜드 제품 제공한다**

- Kroger, Carrefour 등 슈퍼마켓 사업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절약 방법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대와 카테고리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자체 브랜드(Private-label)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 파는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높고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아 충성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Kroger의 Private-label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으며, FMI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 소매업체의 80% 이상이 향후 2년간 Private-label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 **WSJ: Microsoft Invests in Silicon-Battery Material Upstart MS, 실리콘 배터리 신소재 스타트업에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 설립된 실리콘 배터리 신소재 개발 스타트업인 Group14 Technologies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에너지부의 보조금과 여러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이 스타트업의 가치는 3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 Group14 Technologies의 실리콘 양극재는 기존 흑연을 사용한 기술보다 뛰어난 성능의 배터리를 전기차 제조 업체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이 초고속 충전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 흑연

을 대체하거나 함께 작동이 가능해 기존 배터리 공급망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 한편 워싱턴 중심부에 있는 Group14의 개발 시설은 최소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 WSJ 기사

### WSJ: Sales Rise at Zara Owner Despite Economic Chill ZARA 매출 증가...경기 침체, 가격 상승에도 견재

-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패션 대기업인 자라의 소유주 Inditex SA는 “매장을 찾는 쇼핑객이 늘며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가을과 겨울 컬렉션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이 기업의 올해 10월까지 9개월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1억 유로(약 33억 달러), 매출액은 19% 증가한 2백31억 유로(약 246억 달러)였다.
-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원재료 값과 물류비 상승 속에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Inditex는 10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운영비가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고 수준은 작년 동기 대비 15% 높다.

#### WSJ 기사

### CNN Business: Wh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re cracking down on TikTok ‘틱톡’ 금지하는 주 늘어...국가 안보 우려 탓

- 틱톡이 미국 정부의 국가적인 금지를 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주 차원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Alabama, Maryland,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Utah, Texas 주에서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Indiana 주는 지난주 틱톡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 이렇게 틱톡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는 것은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틱톡 간의 협상이 지연되고, 연방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주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 한편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별도의 미국 기반 디지털 시큐리티 팀이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잠재우고자 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고자 하는 공화당 중심 주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

## CNN Business 기사

## [보고서]

**JP모건 보고서: Cyber – The new frontline of geopolitics**  
 사이버: 지정학의 새로운 프론트라인

**Related research:**

[J.P. Morgan Perspectives: Cyber: The new frontline of geopolitics](#), Joyce Chang et al., 21 November 2022

[Video: J.P. Morgan Perspectives: Cyber: Escalating cyber threats fueled by geopolitics](#), Joyce Chang et al., 9 December 2022

[J.P. Morgan Perspectives Presentation: Cyber: Escalating cyber threats fueled by geopolitics](#), Joyce Chang et al., 9 December 2022

JP모건 보고서 원문 듣기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12월 빅스텝-내년 2월 베이비스텝 뒤  
금리인상 멈출 것”**

**美 인플레이션이 고개드는 낙관론**

미국 인플레이션이 확연한 둔화세로 나타나며 시장의 이목이 14일(현지시간)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입에 쏠리고 있다. 13일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1%로 시장 예상치(7.3%)를 하회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4시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한다. 또 미국 경제전망과 FOMC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내년 연말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은 연준이 이날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미 기준금리가 현재 3.75~4.0%에서 4.25~4.5%로 될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관심사는 점도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